

新四軍의 統戰政策과 조직 문제

姜 鉉 士*

<目次>

- I. 서론
 - II. 본론
 - 1. 완고파와 반공파에 대한 문제
 - 2.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의 문제
 - 3. 통전정책과 조직 문제
 - III. 결론
-

I. 서론

통일전선은 하나의 정치개념으로, 사회상의 다른 계급, 계층, 정당, 집단이 일정한 공동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공동이익을 지닌 기초 위에 형성된 일종의 연합을 지칭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바로 일정한 사회역량의 연합이다.¹⁾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세력을 아군의 동맹자로 규정하고, 어떠한 집단을 적으로 만드느냐에 있으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가 핵심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프롤레타리아 해방운동에서 자신의 단결과 동맹군과의 통일과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것은 이 정책이 가지는 정당성과 성공여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통일전선은 혁명에서 주요한 모순과 부차적인 모순을 명확히 하여, 주요 모순의 주요한 적에 대해서 그것과 모순되는 모든 계급 세력을 동원하고 단결하여 주요한 적을 포위하고, 그것을 격멸하는 전술이다. 그러나 이것을 운

* 圓光大 史學科 講師

1) 任濟 主編, 『中國統一戰線基本問題』, 中共中央統戰部辦公廳印, 1987. 1쪽

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음에서는 신사군이 통일전선 정책을 운용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완고파와 반공파에 대한 문제

항전시기 중공의 통일전선은 항일민족통일전선으로 규정한다. 이 말은 항일에 동조하는 모든 계급과 단체 및 개인이 통일전선의 隊伍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모택동은 기본적인 혁명세력으로 노농동맹을 위치시키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자로서 썬띠부르주아, 동요하는 동맹자로 일부의 민족부르주아를 상정하고 있다.²⁾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상대되는 타도대상은 우선 일본제국주의와 항일을 방해하거나 일본에 투항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군을 제외하곤 이른바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頑軍에 대한 정의와 대상에 있어서 중공측은 매 시기마다 변화를 보인다. 우선 완고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완고파란 장개석을 대표로 하며, 항일에는 소극적이고, 반공에는 적극적인 대지주 대자산계급으로 공산당과 인민의 민주역량을 적시한다.”³⁾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모택동이 “모든 투항파와 완고파에 반대한다.”⁴⁾라고 하는 것에서 연유한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것은 이후에 형세의 변화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변화한다. 곧 “목전 반공고조의 형세하에서, 항일민족통일전선정책은 연합과 투쟁을 결합하여야... 완고파에는 양면정책을 취하여 항일에는 연합정책을 반공에는 고립정책을 취한다. 항일방면에도 완고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항일에는 연합정책을, 동요에는 고립정책을 취한다.”⁵⁾라고 하여 이들 완고파에 대해서도 선별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中國革命和中國共產黨」(1939.12), 『毛澤東選集』 Ⅱ卷, 602-604쪽.

3) 中國統一戰線辭典編委會, 『中國統一戰線大辭典』, 中共黨史出版社, 1992. 25쪽.

4) 「團結一體抗日力量, 反對反共頑固派」(1940.2.1), 『毛澤東選集』 Ⅱ卷, 676쪽.

5) 「論政策」(1940.12.25), 『毛澤東選集』 Ⅱ卷, 人民出版社, 722쪽.

그리고 중앙의 지시를 받아 신사군을 지휘하고 있던 유소기도 “완고파에 대해 타격만을 가하고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적이 되어 반공하게 되고, 신사군의 통일전선에 반대하게 된다. 현재 敵頑僞에 대해 일률적으로 타도만을 외칠것이 아니라… 모든 한간과 한간이 되려하는 자를 모두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되며, 다만 한간 왕정위 타도를 외쳐야 한다.”⁶⁾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말 속에서도 완고파에 대한 정의는 불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부대가 실제적으로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완고파에 관한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우리가 西進하는 길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지점에 주둔하고 있던 완군은 국민당 “湖北縱隊”의 旅長 王傳受 관할이었다. 3개단의 1천여 명이였다.… 국민당군 및 信元부대가 기의를 일으켰으며, 또한 1개단의 완군이 王寨일대에서 우리에게 투항을 하였다.…”⁷⁾

이 사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첫째로 완군에 대한 정의가 상대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닌, 자신의 입장 곧, 신사군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방해가 되는 세력을 의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와 아울러 둘째로 신사군을 적대시 하였기에 타도의 대상이었던, 완군이 오히려 신사군에 투항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중공측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공측이 계급적 구분만을 적용하여 각 파를 나눈 것에 있다. 즉 정치적 성향이 배제된 것이다. 정치적 성향을 고려치 않은 것은 다음의 사료에서도 나타난다. 즉 “환남사변 이후 당의 통일전선 정책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당중앙은 일찍이 작년 12월에 지시한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우리당의 항일민족통일전선 정책은 결코 변경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사변 후에도 우리 당은 여전히 항일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 정책은 혁명의 임무와 각 계급의 구체적인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며, 사변은 단지 일부의 대자산계급이 발동한 것이고 기타 계급의 관계는 기

6) 劉少奇, 「一致努力, 長期堅持江南抗戰」, 中共鹽城市委黨史研究室, 「新四軍軍部在鹽城」(江蘇人民出版社, 1988), 142쪽.
7) 主純麟, 「馳騁在淮北平原上」, 安徽省軍區主編, 「新四軍在安徽」(安徽人民出版社, 1982), 211쪽.

본상의 개변이 없었다.… 통전정책은 개변되어서도 안되고, 개변될 수 없는 것이다.⁸⁾라고 하여 구분의 주안점은 여전히 어디까지나 계급에 있었음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중공측의 무원칙적인 구분은 다음의 사료에서 잘 나타난다. “본군은 계속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항전의 단결을 다시 한번 실현하려 애썼다. 豫東의 湯恩伯, 院東의 桂軍 莫德宏, 蘇南의 冷欣, 太湖연변의 俞作栢부대에 대해 모두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 싸움을 걸지 않았으며, 공격하지 않았다”⁹⁾ 그러나 이들 부대에 대한 태도는 6개월 후에 일변하여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¹⁰⁾

결론적으로 국민정부군이 신사군의 주둔지에 근접해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다를 때에는 완군으로 규정되고 타도의 대상이 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우군으로 규정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음이 엿보이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의 하나는 반공을 투항의 전조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곧 신사군 군부에 파견된 유소기는 “현재의 시국은 역전되어 국민당이 투항을 준비하고 있기에 우리는 견결하게 그들의 투항음모를 폭로시켜야.… 반공은 투항의 준비단계이다. 현재에 마찰은 불가피하다. 적후에 우리의 근거지가 없으면 항일통일전선 또한 성립될 수 없다.… 일단 국민당이 투항하고 마찰이 일어나면 근거지가 없고 역량이 부족하기에 투항파를 극복할 수 없고, 항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¹¹⁾라고 하였다. 국민정부군이 신사군과 팔로군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투항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파악하며, 이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에 반공을 투항파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은 반공과 투항이 일치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곧 “환남 신사군을 공격한 반공군은 환북신사군의 저지와 일본군의 소탕을 받아서쪽으로 퇴각하였다.”¹²⁾라고 하는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신사군에 반공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세력이 친일적인 색채를 띠어 일본군과 타협하거나 혹은

8) 黃克誠, 「在淮海縣委書記聯席會議上的報告」, 『新四軍軍部在鹽城』, 263쪽.

9) 陳毅, 「四年抗戰與新四軍現狀」, 『新四軍軍部在鹽城』, 120쪽.

10) 陳毅, 「建設六師爲黨的模範游擊兵團」, 『新四軍軍部在鹽城』, 151쪽.

11) 『新四軍軍部在鹽城』, 16쪽.

12) 「軍部獨立旅1941年作戰及根據地建設概況報告」, 『新四軍軍部在鹽城』, 275쪽.

투항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일본군의 타도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증공측이 반공파로 규정한 세력이 일본군에 타협을 하거나 투항의 조짐을 보이기보다는, 반공을 하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전쟁에도 적극적인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상급의 명령으로 陽南지역을 개척하려 갔다.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한간, 국민당 완고파 李光明의 지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료에서 보이듯이 한간과 완고파를 동일시여기고 있으며, “강남의 통전공작중 과거에는 좌경으로 흘렀다. 예를 들면 梅光迪을 감금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항전에 상당한 공헌이 있는데, 왜 그를 감금하였는가¹³⁾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듯이 항전에 공헌하였음에도 반공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를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僞軍의 성격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았다. 우선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 頑情) 四明산구의 위군은 국민당이 서쪽으로 철수할 때 적뒤에 남아 활동하던 부대로 모두 6600여 명이다.… 완 30사단은 적을 맞아 浙贛로 쪽으로 급진할 때에 남겨진 2개의 단이 적후에서 활동하였는데, 88단 약 천여 명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나, 89단은 이미 투항하였다.”¹⁴⁾

위의 자료를 살펴보면 첫째로 국민정부 철수함에 따라 후방에 남아 있던 잔류부대에 대해 신사군측이 일률적으로 위군으로 파악한 것이고, 둘째로 이들에 대한 통전활동이 없어서 결국은 일본군에 투항한 세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자료에서도 보여지듯이, 적군과 완군, 그리고 위군을 동일시 여겨, 그들의 모순을 이용하는 데에 결정적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거지의 축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6師) … 교훈) 통일전선 공작을 전개하지 않아 타격만을 가하고, 끌어들이기를 행하지 않고… 敵頑의 각종모순을 이용하여 적을 분화, 고립, 생취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큰 근거지를 잃어 주력 일부를 3천여 명의 손실이 있었고, 정권단체는 모두 무너졌으며, 항일군중운동도 진압되었다.”¹⁵⁾라고 하여

13) 主純麟, 「馳騁在淮北平原上」, 『新四軍在安徽』, 211쪽.

14) 「蘇中地區概況報告」, 『新四軍軍部在鹽城』, 198-199쪽

신사군이 통일전선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일본군의 “淸鄉”과 국민정부군에 의한 소탕을 자초한 면과 위기탈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사군측은 적과 완군, 위군을 일률적으로 적으로 간주함으로써 부분적인 동맹자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 통전대상을 확대시켜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적을 증가시킴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의 문제

모택동은 일찍이 “통일전선의 기본조건이 항일임을 인정한다. “항일을 모든 것보다 높다.” “모든 것을 항일에 복종한다.”… 통일전선내부의 모순과 마찰은 비록 피할 순 없고 소멸시킬 수 없지만, 항일을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원칙하에 내부의 모순과 마찰을 줄이고 해결할 수 있다. 중공은 중국의 민족통일전선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것을 중국당의 가장 중심적인 임무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전선의 기초를 확대하고 충실히 한다.”¹⁶⁾라고 언급하여, 항일이 모든 것에 우선되는 중심적인 과제임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王明과의 권력다툼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약간의 변화를 가져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의 가장 급선무는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민족혁명이다.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은 이런 2가지의 기본임무는 서로 구별되며 서로 통일된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임무는 모두 무산계급의 정당이 책임을 져야한다.”¹⁷⁾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민족혁명이라는 항일이외에도 민주혁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항일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중국측 학자들의 논조는 항전중에 나타나는 민족투쟁과 계급투쟁의 일치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곧, 장기합작으로 장기적인 전쟁을 지지하고, 계급투쟁으로 하여금 항일의 민족투쟁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의 근본원칙인데, 이렇듯 계급투쟁은 민족투쟁의 형식으로 출현하였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항전중에 민족투쟁과 계급투쟁의 일치성

15) 「1941年 新四軍 各師年終工作總結」, 『新四軍軍部在鹽城』, 219-220쪽.

16) 「中國抗日戰爭的形勢與中國共產黨的工作和任務」(38.4.14), 『毛澤東選集』Ⅱ卷, 554쪽.

17) 「中國革命和中國共產黨」(39.12), 『毛澤東選集』Ⅱ卷, 613-14쪽.

원칙이다.”¹⁸⁾라고 언급하여 양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항전중에 중공측 즉 신사군이 민주혁명을 위해 실행한 계급투쟁적인 요소를 필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로서는 “긴급한 임무는 … 노농과 자본가간의 투쟁을 조정시키고, 우리는 감소감식과 노임인상등의 구호를 정면으로 제출하여 인민간의 대립을 높여선 안된다. 통전범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民生을 개선하여야 한다.”¹⁹⁾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신사군측에서 올린 보고에서도 “결론 : 통일전선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이미 최선을 다해 民生을 개선하였다.”²⁰⁾라고 언급하여 계급투쟁적인 요소, 곧 민주혁명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음이 보인다. 그런데 양자의 결합은 이론적으로는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결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그리고 항전후기로 갈수록 민족투쟁보다는 민주투쟁의 색채가 강해지고, 그에 따라 통전대상의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을 띤다. 그렇다면 한다면 이것을 중공측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통일전선 정책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아울러 이러한 민주혁명의 요소는 위의 사료에서도 나타나듯이, 통일전선의 조직체, 즉 정치적으로는 三三制에 의한 參議會이며, 경제적으로는 減租減息과 交租交息, 徵收위원회등으로 구현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연합정부는 이 조직이 정권상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형식인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정책과 조직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3. 통전정책과 조직 문제

통일전선내에서의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정책을 전략적 측면으로 파악하고 조직은 전술적 측면에서 전략적 측면으로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의 근거로서 일찍이 任弼時는 코민테른에 참석해서 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8) 『中國統一戰線大辭典』, 23쪽.

19) 「集總對冀察晉區工作指示」(37.12), 中國人民解放軍政治學院黨史教研室編, 『中共黨史教學參考資料』(16), 1985.

20) 「路東區黨委關於根據地建立以來的總報告」(41.12.25), 『新四軍軍部在鹽城』, 252쪽.

“국공합작의 통일전선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의 책략상의 개변만이 아니라, 전략성질의 개변이며, 소비에트혁명시대의 임무에서 기본상의 개변을 뜻한다. 공동항일만이 아니라, 항일전쟁 승리 후에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공동으로 건립한다는 것이다.”²¹⁾ 즉 통일전선 정책은 일시적인 전술상의 변화가 아니라, 전략적 변화이고 그것이 계속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언급하는 유소기의 말은 임필시가 언급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곧

“통일전선은 당의 책략이니 계급을 떠나서는 안되고, 초계급적인 것도 아니다. 단, 통일전선의 조직이 모두 완전히 무산계급의 것은 아니다. 당과 신사군은 무산계급, 노동자 농민의 것이고, 통일전선 조직이 아니다. 통일전선의 정책과 통일전선의 조직을 헛갈려서는 안된다. … 너희들이 과거에 自衛會를 통해 工農民主專政을 행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 통일전선을 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당히 계급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²²⁾

라고 언급하여 통일전선 정책과 조직은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별개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실행되어야만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신사군이 재건된 이후에 軍長으로 취임한 陳毅에게서도 나타나, “통일전선 방면에는 … 사변이전에는 신사군은 통일전선의 군대라고 인식 하였으나, 오늘날은 이 착오의 관점을 뒤집었다. … 오늘날 신사군은 통일전선 정책을 집행하는 모범이 되어야 하나, 결단코 통일전선의 隊伍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신사군에는 오로지 공산당의 영도만이 있다.”²³⁾라고 하여, 중공과 신사군은 통일전선의 영도자일뿐 그것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듯 통일전선의 정책을 전략적 문제로 정의하고, 조직이란 측면은 전술적 측면으로 파악한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왔던 민주혁명을 구현하기 위해 나타난 통일전선의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意義도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21) 「中國抗日戰爭的形勢與中國共產黨的工作和任務」(38.4.14)

22) 「新四軍軍部在鹽城」, 145쪽.

23) 陳毅, 「建設六師爲黨的模範游擊兵團」, 「新四軍軍部在鹽城」, 151쪽.

III. 결 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항전시기 중공의 통일전선은 일본의 침입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연합을 주장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데에서는 자신의 세력과 확장에 반대하지 않는 세력과의 연합으로 축소되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신사군 스스로가 통전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킴으로서 스스로를 고립무원으로 만들어 간 측면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곧 이것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하고, 적을 줄여야 하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만일 친구가 많지 않고 적이 많게 되면 이것은 통일전선의 책략이 활발하지 못한 것이며, 손해를 볼 것이다...”²⁴⁾ 라는 통일전선의 책략을 적절하지 못하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통전정책이 갖는 의의를 평가할 때에 이 정책이 정확하게 운영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항일을 주장하는 세력과 얼마만큼 많이 연합을 하려 하였는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항일이라는 요소를 감안한다면, 계급적 요소만을 가지고 성향을 파악한 것은 한계가 있었으며, 항일이라는 전제에 맞는 정치적 성향을 고려해 동맹군과 적군을 구분하였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은 43년 5월에 주은래의 새로운 지시에 나타난다. “현재 중공은 세 가지의 同情소조가 필요하다. 1) 공산당의 강령 및 맑스주의에 모두 찬성하는 자. 2) 민족해방전쟁중의 공산당강령에 동정 혹은 현재의 정치주장에 동정하는 자. 3) 공산당의 일부분 정책 혹은 주장에 찬동하는 자를 개별 동정자라 칭한다. 1)은 계급 동정자. 2)는 민족해방투쟁의 동정자”²⁵⁾라고 하여 뒤늦게 정치성향의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은 뒤늦게나마 그들의 정책이 가지는 착오를 시인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것은 항전시기 통일전선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항전시기를 항일민족통일전선으로 규정하

24) 劉少奇, 앞의 글

25) 調查統計局 副局長 戴笠의 報告(43.5.9),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 第4編, 「中共統戰活動」, 21-22쪽.

고, 이후 내전시기의 인민민주통일전선으로 변화 발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항전시기에 이미 인민민주통일전선 성격의 통일전선이 등장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을 대체하였다면 이 시기에 중공이 수행한 항일민족통일전선정책에 대한 평가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